

조달청, 고유가 대응 시장안정화 조치 연말까지 연장

- 아스콘, 중량제 봉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면제, 가격 조정 요건 완화

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**유가 고영향 물품**에 대한 **조달시장 안정화 조치**를 **연말까지 연장**한다고 밝혔다.

대상 물품은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**아스콘**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**중량제 봉투**이다.

조달청은 올 3월 이들 물품에 대해 **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면제**하여 신속한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, 원자재 가격 상승시 물품 가격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**가격 조정 요건을 완화**한 바 있다.

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“**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조달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**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구매사업국	책임자	과 장	박 진 원	(042-724-7210)
	구매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김 용 대	(042-724-7266)
	구매사업국	책임자	과 장	김 수 경	(042-724-7261)
	건설환경구매과	담당자	서기관	김 춘 성	(042-724-7068)